

“국가와 고향 위해 최선...내 에너지 최대한 뽐아내겠다”

벤투호 키 플레이어 3인의 각오

손 “특별한 월드컵 만들 것”
이 “최상의 모습 보여주겠다”
김 “팀에 헌신할 준비 완료”

“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제 개인 에너지, 실력, 능력을 최대한 뽐아내서 이번 월드컵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부상 회복중인 손흥민은 최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스크는 생각보다 편안하다. 가볍고 단단하고, 충격을 보호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흥민은 “구단에서 따로 훈련을 진행하며 불을 켜다. 스프린트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지장이 없다”며 “수술로 오히려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고, 몸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다”며 결전의지를 다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외면을 받아오다가 본선 최종 엔트리에 전격 발탁된 미드필더 이강인(마요르카)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며 “대표팀에서도 형들과 함께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인은 “제가 이번 시즌 달라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 건 있는데, 저는 항상 똑같다”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유럽 무대를 누비며 축구 강국 선수들과 부딪쳐 온 이강인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가 모두 좋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모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선수들은 노련하고 상황에 따른 판단도 잘한다”며 “특정한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하긴 하지만 모든 점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인 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민재(나폴리)도 ‘괴물 수비수’ 수식어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민재는 “팀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고 많은 희생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선수가 희생하며 하나가 돼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첫 월드컵 출전을 앞둔 마음을 전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도 충분히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 만한 선수였으나 부상으로 기회를 잃었던 김민재에게 자신의 진가를 최고의 무대에서 입증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다.

“빅리그” 경험으로 “흥민이 형이 어떤 압박감에서 축구를 하는지 알게 된다”고 고백한 김민재는 “팀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수비에서 실수하는 일 없이 잘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이 각 대륙의 강호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쟁을 앞두고 있어서 유럽 정상급 선수들과 맞붙어 본 그의 경험은 대표팀에도 소중한 자산이다.

김민재는 “세리에A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그 경험을 경기장에서도 풀어낼 수 있게끔 특히 수비 라인과는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며 “어떤 선수든, 어떻게든 잘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표팀이 최근 평가전에서 스리백 전술을 가동한 데 대해선 “주로 포백으로 경기를 많이 해왔지만, 감독님이 요구하시면 어떤 전술이든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태극전사 3인의 각오

김 “꿈의 무대 열정 쏟겠다”
나 “오직 실력으로 말할 것”
조 “14km 뛰는 각오로 경기”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태극 전사’ 중 광주 출신은 모두 3명이다.

33세 4개월에 첫 월드컵에 나서는 ‘판형’ 김태환(33-울산), ‘벤투호의 황태자’ 나상호(26-서울) ‘K리그 득점왕’ 조규성(24-전북)이 그 주인공.

김태환은 한국대표팀의 ‘캡틴’이었던 기성용(서울)의 금호고 1년 후배이자 광주 토박이다.

광주남초-북성중-금호고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광주의 아들’이라고 적어뒀다.

울산대를 거쳐 2010년 서울 유니폼을 입은 김태환은 2014년 1월 25일 코스타리카와의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에 데뷔했다. 월드컵의 꿈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2014년 A매치 3경기를 소화했던 그는 2018년 1월 27일 몰도바전을 통해 다시 국가대표로 뛰었다.

그리고 꾸준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던 김태환은 최종 26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마침내 월드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꿈의 무대’를 위해 그는 ‘발전과 최선’을 이야기하면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상호는 자신의 첫 월드컵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나상호는 능주초-광양중을 거쳐 금호고의 ‘특급 공격수’로 활약했다. 단국대로 진학해 ‘단대 머신건’으로도 통했던 그는 2학년을 마치고 2017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부상으로 2골에 그치는 등 기대와 다른 데뷔 시즌을 보낸 나상호는 2018시즌에는 16골을 작렬하면서 K리그2 득점왕-베스트 11은 물론 MVP 트로피까지 들어 올렸다.

광주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17일 호주와의 친선 경기를 통해 벤투호에 처음 승선한 그는 이내 벤투 감독의 황태자가 됐다. /연합뉴스



나상호



김태환



조규성

하지만 A매치 2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던 만큼 나상호는 “보여주겠다”며 머릿속에 첫 월드컵 경기를 그리고 또 그리고 있다.

조규성은 광주에서 축구 인생을 시작했다.

안산 이호초와 원곡중을 거쳐 안양공고를 졸업한 조규성은 이후 광주대로 진학해 프로 무대를 준비했다.

조규성은 대학 1학년 때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2학년 때 새로 부임한 이승원 감독이 그를 ‘최전방 공격수’로 만들었다.

미드필더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조규성은 스승의 안목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2022 K리그1 득점왕(17골) 등극은 물론 월드컵 무대를 누비게 됐다.

조규성은 2018년에는 안양 입단에 앞서 광주대에 후배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7일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해 국가대표로 발돋움한 조규성은 이후 A매치 16경기에서 나와 4득점을 올렸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한국 공격의 키를 쥐고 있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마스크를 낀 채 투혼을 불사르고 있지만, 아직 안과골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친 흥민이 형이 7km밖에 못 뛰 거니까 네가 출전하면 14km는 뛰어야 한다”는 김진수(전북)의 이야기에 “땀 준비가 됐다”며 조규성은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az@kwangju.co.kr

축구 팬 설레게 할 조별리그 빅매치는

스페인 vs 독일 최대 관심

메시 vs 레반도프스키 대결도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고의 ‘빅 매치’로 꼽히는 경기는 오는 28일 오전 4시(이하 한국 시간)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페인과 독일의 E조 2차전이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선 스페인이, 그다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이 정상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두 나라는 이후 월드컵에선 실패를 맛봤다.

스페인인 브라질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뎀 16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겪어야 했다.

이 조엔 두 팀 외에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속해 ‘죽음의 조’로 불린다. 일본은 오는 23일 독일, 다음날 2일 스페인과 만난다.

오는 27일 오전 1시 스타디움 974에서 예정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덴마크의 D조 2차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와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에릭센(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토트넘) 등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하다.

30일 오전 4시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될 미국과 이란의 B조 3차전은 정치적으로 오랜 앙숙인 두 나라가 그라운드에서 맞붙게 돼 관심이 쏠

린다. 이 조에는 ‘축구 중추국’ 잉글랜드와 웨일스도 속했다. 잉글랜드 등과 더불어 영국을 형성하지만 역사적으로 편지민은 않은 사이인 웨일스는 무려 64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본선에 올라 잉글랜드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란전과 같은 시간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두 팀의 간판 해리 케인(토트넘)과 개러스 베일(LA FC)의 자존심 대결도 될 전망이다.

12월 1일 오전 4시 스타디움 974에서 펼쳐질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의 C조 3차전에선 현재 세계 축구를 주도하는 최고의 별이 마주 선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역대 최다인 7차례나 거머쥔 리오넬 메시(PSG)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의 월드컵 본선 첫 격돌이다.

자신의 5번째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월드컵에서 우승 찬을 쫓는 메시와 두 번째 월드컵에서 첫 조별리그 통과를 노리는 레반도프스키 중 누가 팀을 승리로 이끌고 웃을지는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C조에는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가 함께 경쟁해 두 팀과 멕시코의 대결 또한 조별리그 판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5일 4시부터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G조 1차전도 흥미롭다.

‘영원한 우승 후보’로 불리지만 2002 한일 대회 이후 20년 동안 월드컵 정상에 닿지 못한 브라질은 올해만큼은 ‘1순위’로 꼽힌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양궁팀 회장기 단체전 은메달



제24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수확한 광주시청 선수단. 최승실(왼쪽부터) 감독, 이보영, 최민선, 장유정, 기보배.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여자 양궁팀이 제24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청은 최근 충북 보은 결초보은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5-0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4-5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 최민선, 장유정, 이보영이 팀을 이끈 광주시청은 8강 부산도시공사전과 4강 창원시청전 모두 5-0까지 가는 접전 끝에 5-4, 승리를 거두

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승실 광주시청 감독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실업양궁연맹회장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아쉽지만, 한층 나아진 기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부분에 만족한다”며 “내년에는 모든 경기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동계훈련에 박차를 가해 선수 개인이나, 팀 모두 부족한 점을 보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페퍼스 첫승 언제쯤

개막 이후 8연패 늘

광주 홈경기 GS칼텍스에 1-3 패

광주 AI페퍼스가 개막 후 8연패에 빠졌다. 페퍼스는 지난 19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GS칼텍스에 1-3(19-25, 19-25, 25-20, 21-25)로 졌다.

페퍼스는 흥국생명과의 개막 첫 경기 이래 이날까지 8연패를 기록했다.

주포 니아 리드(26점)의 맹타에 힘입어 3세트를 만회했지만, 4세트 막판 승부처에서 모마의 득점과 GS칼텍스의 블로킹에 막혀 무릎 꿇었다.

박은서가 13득점-이한비(이상 아웃사이드 히터) 8득점, 최가는 9점-서채원 8점(이상 마들블로커)을 올리며 분전했다.

페퍼스는 초반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 점수차를 벌여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과 서브 리시브 불안으로 무릎 꿇었다.

범실은 모두 19개로 GS칼텍스(17개)보다 2개 많았으나, 결정적인 찬스에서 나온 것이어서 뼈아팠다.

페퍼스는 약점으로 꼽히는 블로킹에서 고전해 GS칼텍스 모마에게 무려 33점을 허용했고 유서연(15점)-최은지(12점-이상 아웃사이드 히터)에게 두자릿수 득점을 허용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동감
- 2관 동감
- 3관 데시벨, 자백
- 4관 데시벨
-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 6관 데시벨
- 9관 동감, 심야카페: 미생 하니
- 7관 세네카를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자백
- 8관 세네카를 풀: 600미터, 한산 리믹스, 킹덤 2: 아득한 대지로, 극장판 썬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 입학고, 인생은 아름다워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